

배우 장동윤 “더 파격적인 걸 해보고 싶어요”

영화 ‘늑대사냥’서 칼잡이 ‘도일’ 맡아 반듯한 이미지 뒤집는 액션연기 선택

“전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배우 장동윤(30)에게 영화 ‘늑대사냥’은 사실상 영화 데뷔작이나 다름 없다. ‘뷰티풀 데이즈’(2018)나 ‘된 보이 런’(2020) 같은 영화에 출연하긴 했지만, 규모가 작은 작품인 탓에 관객을 만나기 쉽지 않았고 흥행 성적도 시원찮았다. ‘늑대사냥’은 ‘공모자들’(2012) ‘기술자들’(2014)과 같은 흥행작을 가진 김홍선 감독의 신작이다. 성동일·장영남·고창석·박호산 등 베테랑 배우들은 물론이고 서인국·정소민 등 젊은 배우들도 함께했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영화이다. 굳이 말하자면 상업영화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동윤의 이 선택은 꽤나 이채롭다. ‘늑대사냥’이 그간 장동윤이 보여준 이미지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장르의 영화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 작품에는 지금까지 나온 한국영화 중 전인한 것으로는 손에 꼽힐 만큼 선정적인 묘사가 그득하다. 피가 낭자한 것을 넘어 넘쳐 흐르니까지 한다.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남자 주인공에 제격일 듯한 반듯한 얼굴의 장동윤에게 ‘늑대사냥’은 도전으로 보인다. 영화 개봉 직후 만난 장동윤은 “배우로서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파격적인 걸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늑대사냥’은 필리핀에 숨어든 한국인 중범죄자들을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죄수들과 경찰,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미지의 존재 간 충돌을 노골적인 폭력으로 묘사한다. 장동윤은 죄수 중 한 명인 칼잡이 ‘도일’을 맡

았다. 한국에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비밀을 가진 인물이다.

“영화 자체가 파격적이니까, 제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이 영화에서 다소 정적이잖아요. 원래 제가 가진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제 욕심만큼 색다른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일이 비밀을 갖고 있는 인물인 탓에 장동윤은 ‘늑대사냥’에서 대사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짧게 말한다. 이정도로 대사가 없는 작품이 장동윤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홍선 감독은 도일이 미스터리하고 말수가 적은 캐릭터이지만, 그의 표정을 보면 관객이 생각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연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장동윤은 “감독님이 아주 디테일한 디렉팅까지 해주셨지만, 처음 해보는 연거여서 쉽지는 않았고”고 했다. “전 지금까지 대체로 주인공을 맡았으니까 대사가 참 많았어요. 외우기가 벅할 정도였죠. 그때는 대사 한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이번 작품 하면서 알았어요. 대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얼마나 절박하게 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들요.”

새로운 연기를 했다는 것을 빼고도 ‘늑대사냥’은 장동윤에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장동윤은 지난해 초 이른바 ‘조선구마사 사태’를 겪었다. 작년 3월에 공개된 이 드라마는 ‘역사 왜곡을 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다가 단 2회만에 조기 종영했다. 일부 드라마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은 꾸준히 있었던 이슈이지만, 이처럼 2회만에 드라마가 폐지된 건 초유의 사태였다. 장동윤은 ‘조선구마사’의 주연 배우였다. ‘조선구마사’ 폐지 이



후 처음 선보인 작품이 ‘늑대사냥’이다.

“당연히 타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 경력 중 꽤나 이른 시기에 이런 일을 겪었고, 이 또한 배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우로서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이어 장동윤은 이렇게 덧붙였다. “남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괜찮아요.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맞다면요.”



블랙핑크, 인베이전…K팝 걸그룹 첫 1위 오�피셜 앨범 차트 ‘톱100’ 정상 차지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1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는 이번 주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 최신 차트(23~29일)에서 1위를 차지했다.

K팝 통틀어 해당 차트에 정상에 오른 건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블랙핑크가 2번째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9년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 2020년 ‘맵 오브 더 솔: 세븐(MAP OF THE SOUL: 7)’으로 해당 차트 1위에 올랐다.

해당 차트에서 블랙핑크 기존 최고 성적은 지난 2020년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으로 기록한 2위였다. 해당 차트엔 2019년 40위를 차지한 EP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까지 총 3장의 앨범을 올렸다. 해당 차트에 진입한 한국 여성 가수는 블랙핑크가 유일하다.

오피셜 차트를 운영하는 오피셜 차트 컴퍼니(Official Charts Company)의 마틴 탈보트(Martin Talbot) CEO는 “블랙핑크가 ‘본 핑크’로 K팝 걸그룹 중 첫 영국 앨범차트 1위가 된 것은 환상적인 성과”라면서 “기록책에 영원히 기록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주 오�피셜 앨범 차트 1위 경쟁을 치열했다.

쟁쟁한 뮤지션들이 새 앨범을 동시 발매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브릿팝의 아이콘인 밴드 ‘스웨이드(Suede)’가 정규 9집 ‘오토픽션(Autofiction)’으로 해당 차트에서 역대 밴드 최고 순위인 2위로 진입했다.

일본계 영국 싱어송라이터 사와야마 리나는 정규 2집 ‘홀드 더 걸(Hold The Girl)’로 해당 차트 3위에 오르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영국 포크록 밴드 ‘머포드 앤 선즈(Mumford & Sons)’ 프란트맨 마커스 머포드는 셀프 타이틀의 첫 번째 솔로 앨범으로 4위를 차지했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팝차트로 통한다. 그간 빌보드 차트보다 아시아 가수에게 인색하는 인상이 짙었다. 그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6번 1위를 차지하는 동안 오피셜 앨범 차트에선 2번 1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특히 1960년대 비틀스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이 한창 위용을 떨친 1960~1980년대 영향력이 컸다. 여전히 빌보드와 함께 세계 팝 시장에서는 위상을 인정한다.

해당 차트에 한국 가수가 처음 진입한 건 2016년 방탄소년단이 ‘윙스’로 62위를 차지하면서다. 방탄소년단은 해당 차트에 총 10장의 앨범을 올렸다. 블랙핑크가 기세를 이어받아 한동안 해당 차트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추가로 공개되는 세븐 차트에서도 선전이 기대된다. ‘코리안 인베이전(Korean invasion)’이라는 말이 한편에서 나오는 이유다.

블랙핑크는 다음 주 공개되는 10월1일 자 ‘빌보드200’에서도 1위에 오를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블랙핑크는 단순 K팝 관련 걸그룹을 넘어 방탄소년단을 잇는 명실상부 K팝 관련 담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편, 블랙핑크는 국내 씨름차트 기준 ‘본 핑크’ 발매 일주일도 안 돼 K팝 걸그룹 최초로 더블 밀리언셀러가 됐다.

이 차트는 해외 수출 물량까지 성적에 반영한다.

넷플릭스 ‘지옥’, 시즌2 제작…연상호·최규석 다시 뭉친다

시즌1, 인간의 본성 파고드는 날카로운 이야기로 호평

연상호 감독·최규석 작가 웹툰이 원작인 시리즈 ‘지옥’이 시즌2를 선보인다고 글로벌 OTT 넷플릭스(Netflix)가 24일 밝혔다.

작년 11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지옥’ 시즌1은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

상을 다뤘다.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 세진리교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혀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다.

원작에 이어 최 작가와 연 감독이 각본을,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맡아 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이야기로 호평을 들었다.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 투둠(TUDUM)은 시즌1에서 지옥행 시연 후 시체가 됐던 ‘박정자’(김신록 분)가 다시 되살아나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시즌1의 엔딩 위로 “지옥이 다시 시작된다”는 자막으로 시즌2 제작을 예고했다.

시즌2에서도 최 작가와 연 감독이 각본을, 연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유재석, 14년만에 마라도 짜장면집 다시 찾았다

코미디언 유재석이 14년만에 마라도 짜장면집을 다시 찾았다.

유재석은 24일 방송된 MBC TV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지난 2008년 ‘무한도전’ 촬영 당시 찾았던 마라도에 있는 짜장면집을 재방문해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 14년 전 마라도에 왔을 때 했던 춤도 다시 춘 유재석은 짜장면집 사장님을 다시 만나 반갑게 물어보았다.

유재석은 14년 전 사진을 함께 찍었던 4살 아기를 다시 만나기도 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이 아기는 유재석과 악수를 나눴다. 유재석은 “14년이 지났는데도 이 가게가 그대로 있는 게 참 좋다” “다 사라지고 많은 것이 변하지만,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방송인 홍현희, 3분만에 아이 낳고 50일만에 방송 복귀

MBC 예능 ‘전참시’ 출연해

코미디언 홍현희가 출산 후 50일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홍현희는 지난 24일 방송된 MBC TV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했다. 홍현희는 지난 7월 출산을 위해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몸 컨디션이 된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말하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현희는 출산 뒷이야기도 전했다. “마취하고 들어가서 3분만에 낳았다”며 “10시에 들어가서 10시3분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아이를 낳으면 건강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코는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다. 내 코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홍현희는 아이가 생기면서 일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하루도 쫓병을 삼는 것부터 시작했다. 신생아라서 속도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제가 아이랑 가까이 있는데 양치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쫓병을 삼을 게 아니라 입을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치를 진짜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희는 지난달 5일 남자아이를 낳았다.

BTS 제이홉 “크러쉬 협업 제안 심장 뛰었다”

그들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가수 크러쉬의 협업 제안을 받고 “심장이 뛰었다”고 말하며 피쳐링 참여 뒷이야기를 전했다.

제이홉은 크러쉬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Crush의 BLACKVOX’ 첫 번째 손님으로 출연했다.

이 영상은 크러쉬가 게스트를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콘텐츠

다. 제이홉은 크러쉬가 지난 22일 내놓은 새 노래 ‘러쉬 아워’(Rush Hour)에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제이홉은 “형 연락을 받자마자 심장이 뛰었다”며 “노래를 들어보니 안 할 수가 없는 내 스타일의 곡이었다”고 말했다. 크러쉬는 “피쳐링 아티스트인데도 나만큼의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줬다”고 화답했다. 이에 제이홉



은 “성의와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솔로로 피쳐링 하는 게 처음이라 더 열심히 했다. 평소 크러쉬라는 아티스트를 너무 좋아한다”고 했다.